

커피·영화·놀이동산...부가서비스 따라 이통사 '콕'

고객들 멤버십 혜택 따라 가입
음식점·놀이공원 50~60%
CGV 영화관 1만원 할인 등
이통사, 제휴처·할인폭 확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은 한때 통신서비스에 덩으로 따라붙는 부가 혜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며 멤버십 혜택 종류와 범위를 따지는 고객도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멤버십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용자들이 멤버십 혜택을 비교해 통신사를 고르려고 할 정도다. 회사원 김모씨는 "이통 3사 간 통신서

비스의 품질은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왕이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을 하나라도 더 주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멤버십 혜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이통사들도 마케팅 비용을 증액해 멤버십 제휴처를 확대하고 할인 종수를 늘리는 등 고객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도 연초부터 이통 3사가 저마다 멤버십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등 한층 뜨거운 '멤버십 쟁투'를 예고했다. 각 이통사가 내놓은 멤버십 혜택을 뜯어보면 SK텔레콤은 '가족형', KT는 '실속형', LG유플러스는 '2030형' 등의 특징을 지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찾아가자 T멤버십' 이벤트를 시작해 멤버십 경쟁에 불을 지폈다.

설날 연휴 전인 내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벤트 기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스파게티아·불고기브라더스·할리스 등에서는 최대 50%, 편의점 미니스톱에서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제휴처로 재편입된 파리바게트는 구매액 1000원당 100~150원의 할인 혜택과 함께 매일 선착순 1만명에게 식빵 무료 쿠폰을 준다.

가족 놀이공원으로 인기를 끄는 롯데월드에는 60%(동반 1인 50%)의 할인율이 주어진다. 무한 멤버십 혜택이 적용되는 VIP 및 가족결합 고객은 포인트 차감 걱정 없이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반 고객도 평소 수준으로 포인트가 차감돼 부담이 크지 않다.

SK텔레콤이 지난달 19일 고객 등급별 멤버십 할인도도를 대폭 상향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SK텔레콤의 멤버십 공세에 KT는 내달 11~15일 닷새간 '발렌타인데이 어메이징' 이벤트로 맞선다. 이벤트 특성상 젊은층이 주 타겟이다.

해당 기간 CGV 영화 1만원 할인, 푸레쥬르·세븐스프링스·도미노피자 30~50% 할인, 롯데월드 본인 50%(동반 3인 40%) 등 통 큰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월드는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본인 60%(동반 1인 50%)의 할인 혜택이 지속된다.

KT는 SK텔레콤처럼 백화점식 혜택을 아니지만 까다로운 요건 없이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하는 제휴처를 다수 보유한 게 장점이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4·8·10월 등 세 차례 멤버십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의 만족도가 크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이

벤트 횟수와 혜택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당장 눈길을 끄는 멤버십 이벤트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영화 한 분야에 멤버십 혜택을 집중하며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영화 마니아층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69요금제 이상의 고객에게는 조건 없이 연간 24매의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최대 2년간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야 얻을 수 있는 VIP 고객에게만 각각 6매, 12매의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혜택이다.

경쟁사처럼 장기간 누적 납부요금에 아닌, 전월 사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바로바로 멤버십 등급을 정하는 것도 고객 혜택을 우선한 차별화된 정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도 가장 인기 있는 멤버십 항목은 여전히 영화"라며 "멤버십 혜택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필요한 혜택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멤버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어느덧 2015년의 첫 달이 지나가고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고향에 갈 생각이 마음아 들기도 하지만, 교통체증과 차례상 준비 등 신경 쓰이는 것도 많다. 설 명절을 알차게 보내는 필수 앱을 소개한다.

고속도로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아이폰, 안드로이드
명절 귀성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다. '고속도로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상황지도정보, 노선별 소통정보, 구간의 CCTV 정보 제공하고 주요소정보와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키캐스트/Pikicast/아이폰, 안드로이드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 각종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큐레이터들이 관련 그림과 함께 제공해놓은 재미있는 소식들을 읽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를뿐더러 친척들과의 대화에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병원찾는 상비앱 굿닥/Goodoc/안드로이드, 아이폰
명절에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주변에 증세와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는지, 또한 명절에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면 굿닥을 이용해보자. 실시간 진료버튼으로 현재 진료중인 병원을 안내한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이통사, 국가재난망 불꽃 수주전

위치 탐색, 무전 기능 개발 경쟁...4월 사업자 선정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수주전에서 또 한번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겨냥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앞두고 망 구축에 필요한 여러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재난망 설계 모델, 망 운용을 최적화한 솔루션을 차례로 개발했다.

아울러 신속한 상황 전파·지령 전달을 위한 LTE 기반의 영상·음성 무전 기술을 확보했다.

KT도 국내 최고 수준의 통신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망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음성·영상 무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LTE 스마트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 작동하

지 않는 지역에서도 조난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재난용 위치탐색서비스 등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막바지 상용화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지상 재난망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 LTE 기반의 재난망 기술도 확보, 백경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전사 차원의 재난망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의 세부계획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같은 LG 그룹에 속한 LG CNS가 맡은 점도 LG 유플러스에게는 유리한 요소다.

정부는 이달 중 ISP를 완료하고 이르면 4월에 재난망 시범사업자를 선정, 연말까지 강원도 정선·평창·강릉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6년에는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등 8개 시·도에 재난망을 구축하고 이듬해에는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아웃백·할리스 최대 50% 할인
롯데월드 60% 할인
가족결합 고객, 무제한 혜택

LG유플러스
전월 사용요금따라 등급 선정
69요금제 가입자에 연간 24매 영화관람권

KT
세븐스프링스·도미노 피자
롯데월드 30~50% 할인
CGV 영화관 1만원 할인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